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소*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7. 7. 22(토)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50 Victoneta Ave. Malabon City 1476</p> <p>라살아라네타대학은 마닐라 말라본 시티에 위치합니다.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다녀 학교의 규모는 컸고 시설은 사용하기에 불편하다고 느낀 적이 없고 좋았습니다. 필리핀 학생들이 한국어로 인사도 해주고 학교 분위기도 밝고 활기차보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친절하시고 수업도 재밌게 가르쳐주셔서 수업 분위기 또한 좋았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3개의 대그룹 수업과 2개의 소그룹 수업과 3개의 일대일 수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듣기, 쓰기, 문법, 말하기, 발음, 토익 스피킹을 배웠습니다. 저는 아침 8시에 수업이 시작해 6시 25분에 수업이 끝났고, 중간에 점심시간 사이로 쉬는 시간이 두 타임이 있어서 총 8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1교시는 대그룹 수업으로 듣기 공부를 했고 2교시에는 일대일 쓰기 수업으로 문법과 에세이 쓰는 법을 배우고 과제로 해온 에세이를 수정했습니다. 3교시에는 대그룹 수업인 media 시간으로 media와 관련해 영어로 된 영상도 보고 영어로 게임도 하였습니다. 4교시는 일대일 스피킹 수업으로 주로 영어로 대화하고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에 자기의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5교시는 소그룹 수업으로 교재로 수업을 나가기도 했지만 주로 자유롭게 선생님과 영어로 대화를 했고 한 번 영어 스피치를 준비해서 1명씩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6교시도 소그룹 수업으로 영어 스피치를 수업시간에 짧게 준비해 발표를 하고 마지막 주에는 각자 주제를 하나씩 정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1명씩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필리핀 학생들에게 영어로 질문해서 종이에 답을 적는 활동도 하였습니다. 7교시에는 토익 스피킹 수업으로 토익 스피킹에 대해 공부하고 일주일에 한 번 시험을 보았습니다. 마</p>

	<p>지막으로 8교시는 일대일 스피킹 수업으로 영어 발음 공부를 하였습니다.</p> <p>과제는 에세이 쓰기로 일주일에 한 개나 두 개 써야했고, 단어 외우기는 매주 월요일마다 시험을 봤고, 쓰기 수업에서 가끔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시간에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발표 준비를 수업시간에도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못한 부분은 과제로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듣기, 쓰기, 말하기 시험을 보았습니다.</p> <p>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천천히 설명을 해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재밌게 해주셔서 좋았습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p> <p>-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민도로섬, 마닐라, 팍상한 폭포, 따가이따이 투어가 있었는데 저는 민도로섬 투어와 마닐라 투어를 다녀왔습니다.</p> <p>민도로 투어는 이동시간이 길어 힘들고 지치긴 했지만 민도르에서 한 해양 액티비티(스노쿨링, 플라이 피쉬, UFO)가 너무나 재밌었고 바다가 너무나 아름다웠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았습니다. 해양 액티비티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추가 비용을 내서 탔습니다.</p> <p>마닐라 투어는 Fort Santiago, Rizal Park, National Museum에 갔었습니다. 그 날은 너무 더워서 우산, 선크림을 챙겨갔고, 풍경이 아름다워서 좋았습니다. 그 후에 몰 오브 아시아라는 쇼핑몰에 가서 저녁과 디저트도 먹고 쇼핑도 하고 재밌게 보냈습니다.</p>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비가 많이 오는 날도 있어 학교가 휴교한 날이 한 번 있었지만 주로 날씨가 더웠고 햇볕이 뜨거웠습니다.</p> <p>그래서 우산을 쓰거나 선크림을 꼭 바르고 다녀야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학교 스쿨존을 나가면 빈민가여서 조심해서 다니고 여러 명에서 다니면 안전합니다. 식당이나 쇼핑몰, 학교 앞에 경찰이 있어서 그런지 위험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 홈스테이 () 외부 숙소() 기타()</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숙사 시설을 불편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고 좋았습니다. 제 숙소에서는 와이파이가 잘 안 되서 한국에 보이스톡으로 연락하거나 파워포인트 발표 준비를 하기 위해 사진을 다운 받는 등이 잘 안 되서 답답한 적은 있었지만, 숙소가 편안하고 에어컨도 잘되고 깔끔해서 좋았습니다. 통금시간이 10시여서 10시 전에는 꼭 들어와야 합니다.</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 외부식당 (√)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기숙사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한식이 나와서 맛있었습니다. 처음에 음식이 짜긴 했지만 뒤로 갈수록 맛있었습니다. 쇼핑할 때나 놀러갈 때 나가서 사먹기도 하고 기숙사로 배달도 시켜먹기도 했는데, 음식이 좀 짜긴 했지만 맛있었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학교는 기숙사 바로 앞이라서 걸어서 다닙니다.</p> <p>쇼핑몰이나 놀러갈 때는 주로 그랩카나 지프니, 학교에서 운영하는 밴을 이용해서 나갔습니다. 필리핀은 차가 많이 막혀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점호시간에 맞춰서 돌아가려면 생각보다 일찍 출발해야 합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기숙사보증금, 여행자보험	688,710	출국 전 사전 납부
기념품, 생활비, 외식 등	364,700	
합계	1,053,410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돈은 페소로 바꾸는 것보다는 달러로 바꿔 와서 현지에서 페소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졸업식 같은 경우에 짧은 바지를 입지 못하기 때문에 긴바지를 꼭 챙겨야합니다.

기념품을 많이 사갈 생각이면 수하물이나 기내로 가져갈 수 있는 kg이 정해져 있어서 짐을 필요한 것들만 가져와야합니다. 샴푸나 린스, 바디워시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해서 현지에서 사도되고 가져온다면 한 달 쓸 수 있는 양으로 가져와 버리고 갈 수 있는 게 좋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와이파이가 느려서 필요한 어플은 미리 다운받고 영화나 드라마를 다운받아 와서 친한 사람들과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생님들을 위한 한국선물을 어학연수 가기 전에 사가는 것도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공부했지만 영어를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학연수를 간다고 했을 때 열심히 해서 영어 실력을 늘려서 와야지 마음을 먹고 갔고, 필리핀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영어 실력을 늘기에는 짧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리핀 어학연수에서 처음에 에세이를 쓰고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는데 어려웠고 방학 때 쉬다가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만 들으니깐 머리가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지나갈수록 익숙해졌고, 선생님들도 모르는 것은 천천히 다시 알려주시고 재밌게 수업을 하셔서 영어에 흥미를 느끼게 해주셨고 영어 실력을 늘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어학연수를 보내면서 영어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영어 실력을 늘려서 교환학생으로도 가서 공부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필리핀으로 한 달 다녀오니까 방학을 더 뜻 깊게 보낸 것 같아 좋았고 가게 된 것을 후회하지 않고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지내다 보니 한 달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고 얼른 한국에 돌아가고 싶다고 생각했었지만, 영어를 쓰는 나라에서 영어공부하고 선생님들과 같이 수업을 듣는 사람들과 정이 들다 보니 한국에 돌아갈 시간이 다가오자 아쉬웠고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슬펐습니다. 그래도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친해지고 해외에 나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해양 액티비티도 하는 등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고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선생님 말처럼 앞으로 영어 노래도 많이 듣고 자막 없이 영화도 보는 등 영어 공부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민도로섬 투어</p>	<p>마닐라 투어</p>
	
<p>대그룹 수업</p>	<p>일대일 수업</p>
	
<p>졸업식 끝난 후 우리학교 단체 사진</p>	<p>한국에 돌아와서(공항에서)</p>